

중국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China

심익섭(Shim, Ik Sup)*, 이재호(Lee, Jae Ho)**, 서운석(Seo, Woon Suk)***

ABSTRACT

Trust in Government has declined in the world. Purpose of this research examines to explore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the Trust in Government in China. From the analyses of variance, This Study found that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China is statistically different by region, education, ideology.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s higher than average for respondents who live in c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 factor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despite of several findings, because we limit our research to a few undergraduate. we cannot justify our findings as general facts. So we hope to come out more general research for the future.

Key words: China, Government trust, influence factor

* 동국대학교 교수

** 중국인민대학 박사

*** 중국 인민대학 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치와 사회에 대해 국민이 갖게 되는 어느 정도의 불만과 불신은 오히려 정치적·사회적 개혁을 위한 촉매가 되어 체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과 불신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도 폭 넓게 퍼져 있을 때, 즉 정치·행정이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얻지 못 할 경우에 사회 제반 갈등을 관리하는 정치·행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국민의 협조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이 어느 한 정권을 부인하거나 정치체제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Craig & Maggiotto, 1980: 514)는 점에 서 신뢰문제와 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은 사회체제 전환시기로 제도의 미비 등 많은 원인으로 신뢰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당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공산당의 수권능력에 대한 회의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은 국가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였다. 그래서 중국인들끼리 가장 중요한 신뢰감은 가족관계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간의 유대감은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신뢰문제는 공산당과 국가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江泽民 공산당 총서기는 2000년 개최된 ‘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사회 신뢰 의식 확립문제를 제기하였고, 2002년 ‘인민대표회의(人代会)’에서 朱鎔基 총리는 5년 내에 신뢰체제를 제도화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 기업 뿐 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고 가짜와 불량제품, 가짜계 산서, 허위 성과보고, 사기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중국 학자들은 이런 예들을 가리켜 ‘새 발의 피(一地鸡毛)’라고 하고 있다(戎小平·邓习军, 2003: 9).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배신이 하나의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 전반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陈雪敏·陈田民, 2002: 43).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에서는 “三个代表的重要思想”과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신뢰 형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한 제 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舒国增, 2002: 3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는 영향요

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 현실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또,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신뢰(Trust)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신뢰는 수백년 동안 도덕론과 사회철학의 화두였으나, 사회과학에서 신뢰하는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Thomas, 1998; 김용학·손재정, 1998), 신뢰는 사회질서를 위한 하나의 토대 이상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신뢰에 대한 많은 견해를 바탕으로 여러 학파들이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의 수준을 확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은 일상생활에서 뿐 아니라 학문적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신뢰는 심리학, 조직행동, 인사관리론, 마케팅,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정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뢰가 조직의 효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구성개념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Hosmer, 1995). 즉 신뢰란 다른 개인, 집단, 조직의 행동이나 결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Barber 1983; Jennings 1971; Lewis and Weigert 1985), 파트너가 믿을 만한 가에 대한 신념(Mcallister, 1995), 능력 있음(Mishra, 1993), 성실하게 행동하려는 것(Robinson, 1996), 파트너에 대한 믿음과 파트너의 지단관심사항에 대한 배려(Dirks, 1999)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신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신뢰”이다. 일반적 신뢰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로는 퍼트남(R. Putnam)이 있다. 퍼트남은 신뢰의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상호주의라 규정하고, 이 상호주의를 구체적인 것과 일반화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지금 당장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현재의 호의가 미래에는 반드시 보답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교환관계이다(Putnam, 1993:172).

일반적 신뢰는 행정 신뢰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행정가들이 정부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일반신뢰가 낮은 국가에서는 하루아침에 정부신뢰가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일반신뢰가 높은 국가에서는 약간의 노력으로도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신뢰와 일반신뢰는 역동적 관계에 있다. 일반신뢰가 발달할 경우 정부신뢰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정부신뢰가 발달할 경우 일반신뢰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이경용, 1999: 209). 그렇다면 신뢰 형성의 전제조건과 공통 요소들은 무엇일까? 기존 연구를 통한 신뢰 형성의 전제조건과 공통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는 위험(Risk)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취약성(Vulnerable)을 전제로 한다.

둘째, 신뢰는 긍정적 기대(Confident Expectation)의 표현이다. 즉, 신뢰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믿음(Belief)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신뢰는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즉, 신뢰는 기꺼이 하는 마음(Willingness)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강제된 신뢰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의 전제와 공통요소를 종합하여 신뢰를 정의한다면, 신뢰는 위험의 가능성에도 협동적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원숙연, 2001: 259).

신뢰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적신뢰와 공적신뢰의 유형이 중국의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다. 이것은 후쿠야마(Fukuyama, 1995)가 중국을 비롯한 한국, 대만, 홍콩, 이탈리아 등을 “저신뢰 사회”(Low Trust Society)로 구분한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신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를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적신뢰는 개인적 관계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신뢰이며, 개인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로서 그 신뢰의 혜택은 오로지 신뢰관계의 당사자간에만 공유되는 특징을 지닌다(김태영, 2001: 50-51). 즉, 사적신뢰는 일반적으로 대인적 관계에서의 신뢰를 말한다. 사적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한 유형으로서 신뢰관계의 당사자들이 사적신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경우 그들 자신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사회 전체의 공적신뢰 축적으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사적신뢰 관계의 내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내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배타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사회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

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적신뢰의 총합으로 그 사회의 공적신뢰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공적신뢰는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제도, 규칙 등에 대한 신뢰이며, 공적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과도 상호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공적신뢰가 축적되어 있을 때 신뢰의 혜택은 불특정 다수가 누리게 된다. 사적신뢰가 대인적 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신뢰를 말한다면, 공적신뢰는 보다 추상적인, 사회내의 제도나 규범에 대한 신뢰를 지칭한다(이재혁, 1998: 318).

신뢰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신뢰는 거래비용 감소의 기능을 가진다. 즉, 신뢰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분화되고 복잡하며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된 현대사회에서는 거래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뢰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신뢰는 사회적인 통합의 기능을 가진다. 즉,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구성원들이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쉽게 타협에 도달할 수 있는 통합의 기능이 원활해진다. 이러한 기능은 정부정책이나 조직개혁 등의 시행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용한 촉매역할로 작용한다(<http://www.epadic.co>).

2.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

정부신뢰란 정부에 대한 신뢰 즉 정부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의 신뢰관계는 국가 전체로서의 규모적 차원과 운명공동체로서의 질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신뢰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정부는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위임을 형성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훨씬 더 정부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Camson, 1968: 45-46). 그러나 신뢰가 낮아졌을 때 정부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으며, 신뢰는 더욱 손상되게 된다. 결국 악순환이 형성된다(Citrin, 1974; Miller, 1974; Muller and Jukam, 1977).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은 종종 행정신뢰와 혼동되어져 사용된다. 행정신뢰란 “국민이 행정 또는 행정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믿을 갖고, 호의적인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지속적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원한식, 1990: 29). 반면 밀러(Miller)는 정부신

퇴를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 한다. 그러나 둘 다 정부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라고 정의할 때, 정부신뢰와 정부신뢰라는 개념은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미시간 대학의 캠벨(Campbell)이 작성한 항목을 보면 “정부일반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측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조사항목들을 “정부에 대한 평가”로 요약하고 있다(Stokes, 1961:63)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자들은 그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신뢰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한다. 이스턴(Easton)은 정치적 지지의 대상을 당국자, 정권, 정치공동체 등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에서는 Easton이 정부신뢰의 대상으로 구분한 공직자, 정권, 정치공동체 중에서 앞의 두가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Gamson은 정부신뢰의 대상을 공직자, 정권의 정치체도, 정권의 공공철학, 그리고 정치공동체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 네가지는 계층적 수준을 이룬다고 본다(Gamson, 1968: 50-52).

그러나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자들은 그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신뢰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한다. 정부성과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생산하는 각종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어떻게 잘 운용되고 있는가에 기초한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라고 한다(Hetherington, 1998: 79).

정부신뢰 역시 신뢰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다원적인 개념이며,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의 초점에 따라 연구자의 결과는 차별성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밀러(Miller)의 정부신뢰에 대한 정의를 원용한다. 즉 정부신뢰란,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적 또는 감정적 정향으로, 불신의 차원은 높은 불신에서부터 높은 신뢰에 이르면 불신은 정부가 국민 개인의 기대에 따라 기능하지 않고 산출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국민의 개인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부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신뢰 연구는 사조직 분야와 공공분야의 신뢰 연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오경민, 2001). 사조직 분야에서는 경영 혁신의 흐름과 더불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팀체제가 출현함으로써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Costigan, Iltter & Berman, 1998), 여러 가지 분석의 차원에서 신뢰가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한 조직이론은 그다지 풍부하다고 볼 수 없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709). 그러나, 1995년 중반부터 조직경영학적 관점에서 조직 내 신뢰의 역할과 성과간의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며(Gulati, 1995), 신뢰는 조직효율성과 장기적 생존능력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또한 신뢰는 조직과 그들 구성원에게 아주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조직이론과 관련한 신뢰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Kramer, 1999).

공공분야에서의 신뢰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국민의 대정부 신뢰(Carnevale & Wechsler, 1992; Herzlinger, 1996; Metlay, 1996)와 조직간의 신뢰(Bower & Gaber, 1997)등이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신뢰에 대한 연구는 사조직 분야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사조직 부문에서의 신뢰 연구를 공공조직에 연결하는 수준이었다(Carnevale & Wechsler, 1992). 최근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부조직 수준에서의 신뢰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La porte & Metlay, 1996; Ruscio, 1996). 한국에서는 외국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정부불신의 원인, 특성, 영향요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배병용·이시원, 1998;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일반적으로 신뢰연구는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회수준(aggregate level)과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신뢰의 결정요소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는 경우로 이 경우 신뢰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장수찬, 2002: 89). 원한식은 정부신뢰는 외적 요인이 아닌 행정 내부 요인의 문제라고 보았다(원한식, 1990:128-129). 반면, 이시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경제적 상황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6공화국의 정부신뢰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정치·행정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이시원, 1993: 99).

신뢰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에서 보듯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수준과 분석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되고, 그 결과 역시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모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배제하고, 한국과 중국을 비교검토해 본다는 차원에서, 원한식(1990)의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1〉 정부신뢰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명	연구 연도	영향요인
Agger, Perl, Goldstein	1906	선호정당, 계급, 나이, 정치적 효능감, 소득, 정치적 토론정도
Muller	1970	정부의 산출성과
Aberbach, walker	1970	타인에 대한 신뢰, 교육, 나이, 소득, 지역, 정치적 능력, 상대적 박탈감
Rodgers	1974	교육내용, 상대적 박탈감, 지능, 정치적 현실, 사회화 과정
Trilling, Lindquist	1975	나이, 성별, 교육, 거주지역, 교회출석, 각종 조직의 관여정도, 직업, 소득, 노조가입 여부
comber	1978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Weatherford	1984	경제적 상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워터게이트 사건
윤상철	1985	정책에 대한 평가, 연령, 교육, 공무원에 대한 평가, 사회경제적 지위,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적 효능감, 성, 성장지, 생활만족도
Citrin, Green	1986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 대통령의 도덕성과 리더십, 경제적 상태, 이념적 정향, 인구학적 요인
박종민	1989	개인의 가치관, 정책성고, 정치문화 매체접촉, 지역, 사회적 계급세대
원한식	1990	행정의 민주성, 공복성 및 공익성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으로 나타나는 행정적 경험과 문화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이시원	1993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지역등) 개인심리적 요인(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적 효능감,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상황요인(개인, 국가), 정치행정적 요인(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정책성과,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이현수	1999	신뢰자요인(국민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신문독서량, 신뢰성향), 피신뢰자 요인(공무원의 능력, 호의 성실, 공정, 규제시행)
이중수	2001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효율성, 청렴성,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 사적 친밀관계, 이념적 동질성
박희봉, 이희창,조연상	2003	사적신뢰, 단체참여, 정치참여 및 관심,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자료: 이시원(1993: 40)를 참조로 하여 저자가 재구성

III. 연구의 분석모형과 연구가설

1.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경험적 현상으로서의 신뢰를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신뢰를 종속변수로 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또 그것들은 어떻게 신뢰와 연결되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이는 신뢰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신뢰를 독립변수로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이것은 신뢰의 결과를 다루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전자의 방법을 취한다.

국민 개개인이 신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상황 규정은 결국 평가의 주체자로서 국민 개개인이 신뢰의 준거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반 가치들과 경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개인특성요인, 조직내에서의 신뢰수준요인 및 환경만족도요인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중국인민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Questionnaire)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얻는데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 3개의 하위집단에서 학부생 140부, 석사생, 박사생은 공히 130부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는 불비례층화추출법을 사용했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03년 11월 17일에서 21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인으로는 중국인민대학 행정관리학과 박사과정 학생 5명이 참여했다.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0.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신뢰의 본질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과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곳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설문작업이 이루어 졌음을 밝힌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대학 입학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석박사의 경우도 대부분 사회에서 1년 이상의 사회업무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 비록 한계는 있지만 검증 통계치의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증의 유의수준을 $P < 0.05$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2. 변수의 정의와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각 영역인 행정의 공익성, 행정의 민주성, 행정의 고객만족성 영역의 정부신뢰 수준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조직내신뢰, 환경만족도 요인이다. 그리고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지만 종속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배경변수로서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은 각 변수의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명제에 대해 동의 정도를 리커트형 척도(Likert Type Scale)로 묻는 문항(각 Likert 5점)을 구성하여, 이것을 각 요인별로 점수화하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배경변수의 측정은 각 변수의 측정대상을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묻는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정하고 있으나, 신뢰의 대상은 추상적이고 가변적이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를 구성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 영역의 신뢰수준 측정을 위하여 영역별로 설문 명제를 개발하였으며, 제시된 명제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각 5점에서 1점까지 점수화하여 총점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국민이 행정 또는 행정이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 또는 “국민이 행정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정부신뢰를 이렇게 단일 차원화 할 때 정부신뢰는 다른 태도와 마찬가지로 좌·우의 연속적인 차원을 갖게 된다(원한식, 1990).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행정이란 대체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국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활동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성격상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보통사람으로 특징되는 국민들의 평가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들은 자신들의 기대수준이나 행정활동의 수준을 모두 식별할

수 없고 일정한 부류나 유형으로 간소화시켜서 지각하고 평가하게 된다. 즉 국민 개인은 ①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규제的内容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행정의 공익성), ②행정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행정의 민주성) 그리고 ③행정활동의 주체인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행정의 고객만족성)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행정을 평가하며, 그러한 평가의 결과가 바로 정부신뢰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원한식, 1990: 27-28). 정부신뢰 수준 측정을 위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종속변수 : 정부신뢰의 측정과 설문 구성

영역	문항수	설문내용	척도
행정의 공익성	5	a 정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a 정부 정책이 특정지역이나 몇몇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 a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 a 정부의 정책과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a 정부가 행정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있다.	Likert 5점
행정의 민주성	4	a 요즈음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행정을 한다. a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생활에 도움을 준다. a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알고 싶다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a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는 믿을 만 하다.	
행정의 고객 만족성	3	a 공무원이 여러 가지 친분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무사하게 봉사한다. a 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이나 규정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있다. a 요즈음도 부정직한 공무원이 있다.	

2) 독립변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일반적인 신뢰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인 개인

특성 요인, 조직내신뢰 요인, 환경만족도 요인을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이타심', '자기표현의지',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활동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사회지향성'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사회 내부의 공동체의식을 촉진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특성 요인에 대한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이타적이며, 자기표현의지가 강하고 인간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성이 높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표 3〉 독립변수 1 : 개인특성 요인의 구성변수와 설문 구성

변 수	문항수	설 문 내 용	척 도
이 타 심	1	세상에 나 혼자라면 살아가기 힘들다.	Likert 5점
자기표현의지	1	남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다.	
인간본성인식	1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지향성	1	나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려고 한다.	

개인특성 요인과 관련하여 (H1) 이타심 변수가, (H2) 자기표현의지 변수가, (H3) 인간본성인식 변수가, (H4) 사회지향성 변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표 4〉 독립변수 2 : 조직내신뢰 요인의 설문 구성

요 인	문항수	설 문 내 용	척 도
조직내 신뢰	5	a 상대방이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a 상대방이 나보다 우위를 점하려 든다고 생각한다. a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a 상대방이 나와 솔직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한다. a 상대방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Likert 5점

조직내신뢰가 공적신뢰 형성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함양된 신뢰

와 호혜주의가 외부적으로 보편화된다는 외부효과를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내 신뢰가 협력의 학습효과를 통해 외부적인 신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내신뢰 수준의 측정을 위해 Cummings & Brommiley가 개발한 측정도구 중에서 OTI-SF(Organization Trust Inventory-Short Form)을 수정(김영동, 1999:158)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내신뢰 요인 설문 문항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조직내신뢰 요인과 관련하여 (H5) 조직내신뢰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환경만족이란 개개인이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자신의 욕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흐뭇해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만족은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의 환경만족도 요인 설문 문항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독립변수 3 : 환경만족도 요인의 설문 구성

요 인	문항수	설 문 내 용	척 도
환 경 만족도	5	a 어느 정도 행복한가? a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a 사회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a 동포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a 중국인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하는가?	Likert 5점

환경만족도 요인과 관련하여 (H6) 환경만족도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3) 배경변수

중국은 1958년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구(农业户口)와 비농업인구(非农业户口)를 구분하여 농촌인구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刘尔铎, 2003: 2). 현재의 소득격차 문제를 보면 지니(Gini)계수가 최저 0.40에서 최고

0.50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최저 2.5배에서 최고 4.2배로 추산되고 있다(刘秉泉, 2003: 19). 중국 통계국의 2001년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가구 최저소득층의 평균 연가처분소득이 2,802元, 소득보호대상가구가 2,451元인데 비해, 농촌가구의 연평균순소득은 2,366元으로 조사되었다. 이 통계는 중국 농촌가구의 50% 정도가 도시가구의 최저소득층과 소득보호대상가구보다 더 낮은 소득수준임을 의미한다(余天心·王石生, 2003: 23). 본 연구는 중국의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학적 배경요인으로 신뢰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 항목인 성별, 학력 외에 공산당 가입여부, 성장지역 변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학적 배경요인 설문 구성과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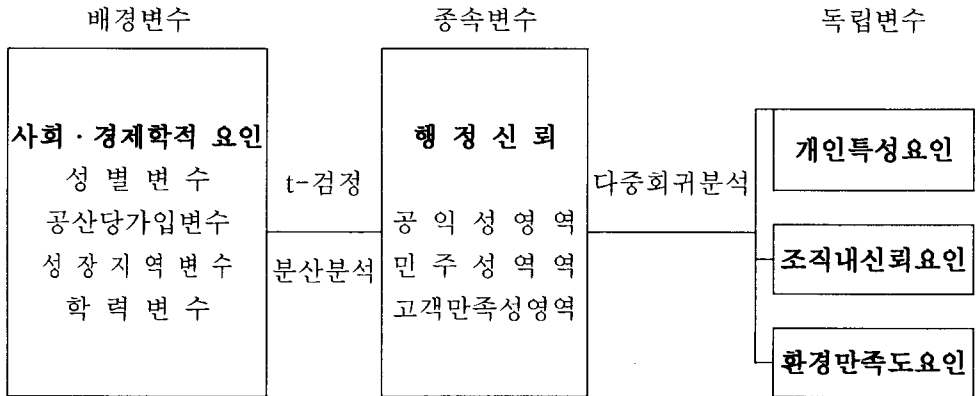
〈표 6〉 배경변수 : 사회·경제학적 배경요인의 구성 변수와 설문 구성

변 수	문항수	설 문 내 용	척 도
성 별	1	남/여	명 목
학 력	1	학부생/석사생/박사생	
공산당가입	1	입당 또는 계획중/미입당 그리고 계획 없음	
성장지역	1	도시/농촌	

사회·경제학적 배경요인과 관련하여 (H7) 성별에 따라, (H8) 학력에 따라, (H9) 공산당 가입 여부에 따라, (H10) 성장지역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가설의 채택, 기각 여부를 검증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 모형



IV.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및 가설검증

1. 일반 특성 및 신뢰도 분석

수집된 표본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에 대한 일반특성의 빈도분석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중 조직내신뢰, 환경만족도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 문항에 대해 신뢰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수집된 설문지는 학부생 140부 중 119부(85%), 석사생 130부 중 108부(83%), 박사생 130부 중 103부(79%)로 총 33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유효설문지 회수율은 82.5%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영역 중에서 정부신뢰, 조직내신뢰, 환경만족도 요인은 두 가지 이상의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경우에 따라 내적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reliability)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신뢰 요인의 신뢰성 분석에서 12개의 항목에 대한 신뢰성계수를 보면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8729, 조직내신뢰와 환경만족도 영역은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각각 0.6433, 0.7333으로 측정하는 영역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7〉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별 빈도표

변 수	집 단	Frequency	Percent	C. Percent
성 별	남	187	56.7	56.7
	여	143	43.3	100.0
학 력	학부생	119	36.1	36.1
	석사생	108	32.7	68.8
	박사생	103	31.2	100.0
당가입	입당	249	75.5	75.5
	미입당	81	24.5	100.0
성장지역	도시	185	56.1	56.1
	농촌	145	43.9	100.0

2. 정부신뢰와 배경변수간의 집단차이 분석

성별, 공산당 가입여부, 성장지역 변수는 명목척도로 측정되었고 표본집단이 두 집단인 경우로서 t-검정을 통하여 두 집단이 정부신뢰 수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정부신뢰를 측정한 통계량을 보면 평균이 남성 2.53, 여성 2.52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성별간의 t-검정 분석 결과 t값이 0.139이고 양측 검정 값이 0.890으로 유의수준 95%내에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정부신뢰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당 가입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수준은 가입의 경우 2.53, 미가입의 경우 2.51로 가입의 경우가 정부신뢰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공산당 가입 여부의 t-검정 분석 결과는 t값이 0.167이고 양측 검정 값이 0.868로 유의수준 95%내에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공산당 가입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에 따른 정부신뢰는 도시의 경우 2.62, 농촌의 경우 2.40으로 도시의 경우가 정부신뢰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성장지역간의 t-검정 분석 결과는 t값이 3.490이고 양측 검정 값이 0.001로 유의수준 99%내에서 유의하다. 따라서 성장지역에 따른 정부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출신이 농

촌 출신에 비해 정부신뢰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학력 변수는 명목척도의 성격을 가지며 세 집단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학력에 따른 정부신뢰를 측정한 통계량은 평균이 학부생 2.63, 석사생 2.55, 박사생 2.37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6.248이고 P값이 0.002로 유의수준 99%내에서 매우 유의하며 학력 유형별로 정부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후검정 테스트를 위하여 Scheffe에 의한 방식으로 검정을 하였다. 학력 유형에 따라서 정부신뢰 수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부생과 박사생간에 정부신뢰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학부생이 박사생에 비해 정부신뢰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공산당 가입 여부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H7), (H9)는 기각된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 성장지역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H8), (H10)은 채택된다.

3. 정부신뢰와 독립변수간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상호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6개의 독립변수 X_1, X_2, \dots, X_6 들이 종속변수 Y 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beta_6 X_{6i}$$

Y_i 는 i 번째 관찰한 정부신뢰 변수의 값

X_{1i} 는 i 번째 관찰한 이타심 변수의 값

X_{2i} 는 i 번째 관찰한 자기표현의지 변수의 값

X_{3i} 는 i 번째 관찰한 인간본성인식 변수의 값

X_{4i} 는 i 번째 관찰한 사회지향성 변수의 값

X_{5i} 는 i 번째 관찰한 조직내신뢰 변수의 값

X_{6i} 는 i 번째 관찰한 환경만족도 변수의 값

β_0 는 상수, $\beta_1, \beta_2, \beta_3, \beta_4, \beta_5, \beta_6$ 은 회귀계수이다.

정부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8〉정부신뢰의 다중회귀분석 기술통계량

VAR	Mean	Std. Deviation	N
정부신뢰	2.5287	.57388	330
이타심	3.72	.99	330
자기표현의지	3.39	.80	330
인간본성인식	3.43	1.06	330
사회지향성	3.72	.85	330
조직내신뢰	3.23	.48430	330
환경만족도	3.61	.58273	330

회귀분석에서 자기상관의 존재 유무는 일반적으로 더빈-왓슨(Durbin-Watson) 계수로 불리우는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판정한다.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델의 더빈-왓슨(DW) 값이 1.73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현상이 무시될 만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중회귀분석의 회귀모델에 대한 결정계수를 보면 결정계수(R Square)는 0.213으로 전체 분산 중에서 21%를 설명하고 있고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 Square)는 0.198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이타심, 환경만족도 변수이다. 이타심 변수는 회귀계수가 $-7.150E-02$, Sig. = .016로 유의수준 95%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회귀계수가 -로 나타나 이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신뢰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성향인 이타심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타심이 높을수록 사회와 행정에 의해 더욱 많은 좌절을 느끼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보다 쉽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만족도 변수는 회귀계수가 .364, Sig. = .000으로 유의수준 99%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주위 환경에 대해 만족할수록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의지, 인간본성인식, 사회지향성, 조직내신뢰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신뢰에는 이타심, 환경만족도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표 9〉 정부신뢰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1.094	.255		4.298	.000
이타심	-7.150E-02	.029	-.123	-2.428	.016
자기표현의지	5.341E-02	.039	.074	1.381	.168
인간본성인식	4.525E-02	.029	.084	1.556	.121
사회지향성	-6.843E-02	.037	-.101	-1.859	.064
조직내신뢰	9.464E-02	.066	.080	1.440	.151
환경만족도	.364	.056	.369	6.547	.000

Dependent Variable : 정부신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타심 변수가, 환경만족도 변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1), (H6)은 채택되며, 자기표현의지 변수가, 인간본성인식 변수가, 사회지향성 변수가, 조직내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2), (H3), (H4), (H5)는 기각된다.

4. 정책적 시사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환경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이 연구의 모델이 된 원한식의 분석결과를 보면 행정의 민주성, 공익성, 및 공복성에 대한 인식만이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 요인들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나 그 크기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하였다(원한식, 1990:128-129). 이러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신뢰수준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출신이 도시출신에 비해 정부신뢰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패가 도시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중국관료 내부의 문제 때문에 발생

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현 중국정부는 지방재정의 분권화로 인해 재정력이 높은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방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실제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살펴보면 일부 현정부의 경우 퇴직 관료에게 지급할 퇴직예산이 없어 관료를 퇴직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楊擁軍, 1997: 42-43). 또 많은 농촌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농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잡세를 징수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농민들이 지방정부를 점거 농성하는 사건도 종종 중앙에 접수되고 있다. 이는 본 조사 중 중국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입증되었다. 반면에 도시인의 삶의 질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어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이번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농촌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접상관은 없지만,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 태도에 대한 신뢰감으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다(조현진, 2004). 이 결과를 위의 농촌재정력과 결부시켜 보면, 중국지방정부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력 보충을 위한 방편임을 간접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중국사회조사시 많은 지방관료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문제가 종종 거론되는 것으로 볼 때, 지방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해 외국기업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투자이후 기업 애로점으로 1) 법령의 미비나 불투명성, 2) 세제의 미비나 그 운용의 불투명성, 3) 법령의 자의적인 운용을 꼽는 기업이 많아, 지방정부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수시장 진출 애로요인 중 대금회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들에 신뢰도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정경택, 1996; 김판진, 2000; 강정모, 2001). 특히 일본기업들이 그동안 대중투자를 망설인 이유 역시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인들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그들의 조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03). 특히 일본 기업들은 부메랑 효과와 중국정부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수출위주의 기업들은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어느 지방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느냐가 앞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중국지방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역으로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외국투자가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주느냐가 앞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에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중국에서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근거의 하나로 신뢰의 결핍을 들고 있다. 더구나 사회가 더욱 성숙할수록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연구의 일환으로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과 정부신뢰의 영향관계를 보면 이타심은 정부신뢰에 대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본성인식, 자기표현의지, 사회지향성은 정부신뢰에 대하여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성향인 이타심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타심이 높을수록 행정에 의해 더욱 많은 좌절을 느끼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보다 쉽게 하락할 수 있다는 추측과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가질수록 신뢰대상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환경만족도는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내신뢰는 정부신뢰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에서 함양된 신뢰가 외부적으로 보편화된다는 주장이 본 연구에서도 일정 정도 확인되었을 뿐이다.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에 따른 정부신뢰 수준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학력, 사상적 입지, 소득수준의 정부신뢰 수준간에는 집단간에 의미 있는 평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대해서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름의 사회적인 보상과 명예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와 행정을 덜 불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행정에 대하여 더욱 높은 기대를 하고 있고 더욱 비판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는 '중상'에 속하는 집단의 정부신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성별, 공산당 가입 여부의 차이는 정부신뢰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성장지역의 차이는 정부신뢰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행동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신뢰수준이 더 낮으며, 여성이 일반적으로 조직에 대해 애착과 신뢰가 크고, 덜 냉소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Carnevale, 1992)¹⁾,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적극적

이고 비판적인 정치행동은 주로 도시지역일수록 먼저 발생하여 그 규모가 확대된 경우가 많다고 보며, 각종 선거에서 여론야도 현상을 볼 때 도시지역일수록 진보적이고 불신의 정도가 높다고 예측하기도 한다(배병용·이시원, 1998:393-427).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에 비해 정부신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향후 연구에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추출에 한계가 있다. 연령 및 세대에 관해서 보면, 성인들은 실질적으로 공적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며, 이상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젊은 세대보다 사회와 정부를 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다(Hochreich D. J. & Rotter, J. B., 1970:211-214).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민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에는 해석상의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일반 중국 국민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선정할 때, 중국 특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영향요인은 기존의 신뢰 연구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요인들이었지만 중국의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신문 등 매스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위해서도 신뢰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가 더욱 비판적인 태도로 옮겨갈 때 정부신뢰는 낮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는 부정적 기사가 과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접할수록 신뢰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Hetherington, M. J., 1998). 그러나 중국은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처럼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특색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박광섭 등(1999)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조직신뢰 간에 아무런 정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성원(1997)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사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정모.2001.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 김번웅·김도현·김판석.1997. 한국행정개혁론, 서울: 법문사.
- 김호정.1999.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행정학보」, 33(2): 19-35.
- 박태석.1998.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계명대대학원 박사논문.
- 김판진.2000. 중국시장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실증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 박통희.1999.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1-17.
-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2003.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배병용·이시원.1998. 정부불신의 원인과 결과. 「한국행정학보」, 22(2):393-427.
- 소순창.1999. 지방의원의 정치적 효능과 신뢰감에 관한 실증분석: 광역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4): 411-432.
- 원숙연. 2001. “신뢰의 개념적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의 차별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원한식, 1990, “행정신뢰의 변인연구-전복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경용, 1999, “한국 근로자의 신뢰수준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5: 205-259.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2): 311-335.
- 이현수.1999.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 37-56.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결사체 참여(civic engagement), 사회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정부신뢰(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정경택.1996.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유형에 관한 실증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 KOTRA 해외조사팀.(2004). 중국진출일본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서울: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epadic.com>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陈雪梅·陈田民, 2002, “论市场经济下诚信原则的确立”, 「常州论坛」, 2002.4.

刘秉泉, 2003, “当前我国收入分配制度改革中的热点问题及对策建议”, 「经济要参」, 2003. 38.

刘尔铎, 2003, “从城乡二元劳动市场到城市内部二元劳动市场”, 「学坛」, 2003.1.

楊擁軍(1997), “地方實施辭職辭退存在的問題及建議”, 「中國公務員」 1月.

戎小平·邓习军, 2003, “信用建设与法律保障”, 「温州社会科学」, 2003.1.

舒国增, 2002, “浅谈诚信理论的建立和规范”, 「温州瞭望」, 2002.11.

余天心·王石生, 2003, “理顺收入分配关系的根本出路”, 「经济研究资料」, 2003.2.

Axelrod, R.(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Barber, B.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Carnevale, D.G.(1995). *Trustworthy Govern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Carnevale, D.G., & Wecgasker B.(1992). Trust in Public Sector. *Administration & Society*, 23(4): 471-494.

Cook, J., & wall, T.(1980). New York attitude measures of Trust,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sonal need non-fulfill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 39-52.

Craig, S. C. & Maggiotto, M. A., (1980). Political Discontent and Political Action, *The Journal of Politics*, 43(2).

Cumming, L. L., & Bromiley, P.(1996).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OTI):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R. M. Kramer, and T.R. Tyler(Eds.), *Trust in Organizations*, Thousand Oakss, CA: Sage, 302- 330.

DAley, D. M. & Basu, M. L.(1998). Fostering organizational trust in North Carolina: the pivotal role of administrator and political leaders: *Administration & Society*, 30(1): 62-83.

Dirks, K. T.(1998). The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on work Group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3):445-455.

Donal E. Stokes.(1962). “Pupular Evaluations of Government : An Empirical Assesment”, In Harlan Cleveland & Harold D. Lasswell(eds.), *Ethics*

and Bigness: Scientific Academic ; Religious, Political and Military.
New York; Harper & Brothers.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B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basil blackwell.

Gulati, R.(1995). Does familiarity breed trust? The implications of repeated ties for contractual choice in allianc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85-112.

Hetherington, Marc J.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Hochreich D. J. & Rotter, J. B., 1970, Have college students become less tru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Jack Citrin.(1974). Comment :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Jennings, E. E.(1971). Routes to he executive suite, New York: McGraw-Hill.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of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Kramer, R. M.(1999), Trust and distrust in organizations: Emerging perspectives, enduring ques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569-598.

La Porte, T.R. & Metlay, D.S.(1996). Hazards and Institutional Trustworthiness: Facing a Deficit of Tru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4): 341-347.

Lewis, J. D., & Weigert, A. 1985. Trust as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34:967-985.

Mayer, R.C.,Davis,J.H., & Schoorman,F.D.(1995). An Inter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Mcallister, D.(1995). Affect-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1):24-59.

Mishra, A. K.(1996). Organizational responses to crisis: the centrality of trust.

- In Mowday, R. T., & Steers, R. M.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79, 14:224-247.
- Putnam Robert,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33-42.
- Ring, P. S. and Van de Ven, A.H. (1994).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operativ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4-404.
- Robinson, S. L. (1996). Trust and Breach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574-599.
- Ruscio, K. P. (1997), Trust in the administrative Stat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5): 454-458.
- Thomas, C.W. (1998).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Administration and society*, 30(2): 166-193
- William. A. Gamson,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II: dorsey, 1973

저자약력

심익섭 : 현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독일슈바이어(Speyer)대 행정학 박사

주요관심분야는 조직관리 및 행정문화, 지방자치행정

주요논지는 한국민주시민교육론(편 2004), 독일지방정부론(공저 2003) 외 다수

이재호 :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중국인민대학 행정학 박사

주요관심분야는 중국행정 및 정보통신정책

주요논문은 후진타오시대 중국정부의 정책방안(2004), SARS의 대응사례를 통해 본 중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2003)

서운석 : 현 중국인민대학교 공공관리학원 박사과정

주요관심분야는 행정윤리